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Karbon Story

WEEKLY REPORT
VOL.20
2025.11.03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EU, 2040 기후목표에 국제크레딧 반영 확대 논의
- 가나, ITMO 발행 확대, 서아프리카 탄소시장 선도
- CDM에서 PACM으로, 파리협정 제6.4 첫 방법론 출범
- 인도네시아, 절대 배출상한 첫 도입, 파리협정 제6조와 연계
- GCF, 개발도상국에 사상 최대 32억 달러 기후자금 승인
- EU, 기후대응 지연 시 5조 유로 손실 경고
- 부탄, “Carbon Negative” 10년 더 유지, 제6조 자금 활용
- 갈리시아, 스페인 최초의 지역 자발적 탄소시장 출범 예고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U, 2040 기후목표에 국제크레딧 반영 확대 논의

EU가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크레딧을 인정하는 근거 문구를 강화하고자 함.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이 2040년 감축 목표의 최대 3%를 국제 탄소크레딧 구매로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프랑스는 5%, 폴란드는 10%까지 확대를 주장

다만 EU ETS 내에서는 여전히 국제 크레딧을 감축 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유지

또한 EU 이사회 초안은 2039년 이후에도 일부 산업의 배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ETS 감축경로 완화를 검토하고, EU 외부 CO_2 저장도 국제 협정 조건 하에 허용함.

유럽의회는 11월 중순 2040년 목표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며, EU는 해당 목표를 기반으로 2025~2035년 NDC를 COP30에서 제출할 계획

출처: https://www.reuters.com

Back to Top

가나, ITMO 발행 확대, 서아프리카 탄소시장 선도

가나가 스위스와 협력해 2억 달러 (약 0.3조 원) 규모의 루프탑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

동 프로젝트는 파리협정 제6.2조(양자 감축 협력) 기반으로 운영되며, 가나에서 감축된 온실가스 실적 (ITMO) 일부는 스위스로 이전되어 스위스의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되고, 가나는 투자·기술이전·역량 강화 등의 혜택을 받을 예정

총 137MW 규모이자 주택, 중소기업,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약 4천개의 루프탑 태양광 설비 설치를 목표로 하는 동 프로그램은 승인 시, 가나 최초의 6.2조 기반 루프탑 태양광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

가나는 서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제6조 등록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로, 이미 스위스와의 양자 제6.2조 협정 하에서 약 12,000개의 검증된 탄소단위를 발행, 이는 스위스의 파리협정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ITMO로 활용될 예정

출처: https://carbon-pulse.com/

Back to Top

CDM에서 PACM으로, 파리협정 제6.4 첫 방법론 출범

파리협정 감축인증 메커니즘 (PACM) 하에서 제6.4조 감독기구 (SBM, Supervisory Body Meeting)가 첫 번째 방법론을 승인함.

승인된 방법론은 'AMM001: Flaring or use of landfill gas (매립가스의 연소 및 활용)' 으로, 제6.4조 방법론 전문가 패널 (MEP, Methodological Expert Panel)의 권고를 따름.

이는 과거 CDM 방법론 ACM0001을 현대화한 버전이자, PACM 체계 하에 최초로 적용되는 감축 기준

향후 지역 또는 부문 단위 확대를 위해 추가 기준 (추가성, 기준선, 누출 등)이 마련될 예정

금번 승인으로 제6.4 메커니즘이 CDM을 대체하는 글로벌 탄소감축 시스템으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평가

MEP는 앞으로 전력시스템 배출계수, 기준선 설정 등의 추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음 회의는 2026년 2월에 예정

출처: https://carbon-pulse.com/

Back to Top

인도네시아, 절대 배출상한 첫 도입, 파리협정 제6조와 연계

인도네시아가 새 NDC를 통해 절대 배출상한 (absolute cap)을 도입, 총 배출량을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국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030년 정점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12.6억 톤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 '2025년 대통령령 제110호'를 제정해 국가 배출권거래제 (ETS), 탄소부과금 (carbon levy), 성과기반지급제도 (RBP)를 포함한 제 6조 기반의 탄소거래체계를 법제화

금번 개정 NDC는 파리협정 제6조 거래 및 국제 기후금융을 연계해 약 4,726억 달러 (약 676조 원)규모의 조건부 감축 재원 확보를 모색함.

또한 폐기물, 해양 부문까지 감축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 및 부문별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감축 진척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국가등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

이는 인도네시아가 경제 성장과 탄소 감축의 병행을 목표로 국제 투명성 기준을 충족시키며, 향후 제6조 거래 참여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

GCF, 개발도상국에 사상 최대 32억 달러 기후자금 승인

UNFCCC 산하 GCF(녹색기후기금)가 2025년에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기후금융 지원 규모를 사상 최대인 32억 6천만 달러 (약 4.7조 원)로 승인

송도에서 열린 제43차 이사회에서 22개 신규 감축·적응 프로젝트가 통과됐고, REDD+ 기반 사업이 우간다·라오스 등에서 진행될 예정

GCF는 또한 바누아투·튀니지·트리니다드토바고·카자흐스탄·베트남 5개의 직접 접근기관 (DAE, Direct Access Entities)을 인증했는데, 이는 GCF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을 자격을 갖춘 기관들을 의미

현재 GCF는 336개 프로젝트, 193억 달러 (약 28조 원)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약 72조 원) 운용을 목표로 하는 '50 by 30' 계획을 추진 중

선진국들이 약속한 연간 1,000억 달러 (약 144조 원)의 기후금융 목표를 늦게 달성하며 부채성 자금 비중이 높다는 비판이 있으나, GCF는 자금의 균형을 유지하며 최빈국·도서국·아프리카 국가에 집중 지원할 방침

출처: https://www.greenclimate.fund

Back to Top

EU, 기후대응 지연 시 5조 유로 손실 경고

유럽 의회의 의뢰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기후대응 지연으로 인해 2050년까지 지구평균 기온이 3도 상승할 경우 최대 5조 유로 (약 8,250조 원)의 경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

연구는 배출 감축 지연이 GDP 하락, 건강 악화, 일자리 상실,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며, 기후정책에 대한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 손실을 방지하는 투자임을 강조, 현재 기후 보호에 투자하는 1유로가 미래 비용 4~10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힘.

EU와 ECB는 이를 막기 위해 기후비용 회계제도 도입, 기후위험 공시 의무화, 예방적 투자 확대, 청정에너지 보조금 및 녹색산업 정책 강화 등 제도적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를 제시

출처: https://euobserver.com

Back to Top

부탄, “Carbon Negative” 10년 더 유지, 제6조 자금 활용

부탄은 이미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탄소 배출보다 흡수량이 많은 Carbon Negative 국가로 평가받는 나라로, 새롭게 발표한 제3차 NDC(2025~2035)에서 그 상태를 10년 더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부탄의 숲은 배출량의 6배 이상 탄소를 흡수하지만, 예산과 기술의 제한으로 국제 탄소시장 (파리협정 제 6조)을 적극 활용해 기후대응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

이를 위해 싱가포르와 제6.2조 협정을 맺고, 탄소등록부를 연동했으며, ‘부탄 탄소시장 규정’과 ‘탄소시장 정책’을 마련함.

부탄은 기후 적응(산림, 수자원, 농업 등)에 2023~2038년 동안 140억 달러 (약 20조 원)가 필요하다고 추산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

동시에 2050년까지 GDP를 10배로 확대해 지속가능 성장과 기후중립을 병행하려는 목표를 수립

출처: https://www.qcintel.com

Back to Top

갈리시아, 스페인 최초의 지역 자발적 탄소시장 출범 예고

스페인 갈리시아 주정부가 자국 최초의 지역 자발적 탄소시장(VCM)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정함.

이번 법령은 2026년 초 출범할 'SICLE CO2' 이니셔티브의 설립을 명시하며, 그린워싱 및 이중계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추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

프로젝트는 갈리시아 내에서만 개발 가능하지만, 외부 기업도 크레딧 구매자로 참여 가능. 갈리시아 주정부는 크레딧의 공급과 수요를 모두 촉진하기 위한 보완적인 기후법 제정 또한 추진 중

모든 프로젝트는 추가성, 영속성, 독립회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사회 기여 및 주민 참여가 필수 조건. SICLE CO2 이니셔티브는 총 680만 유로 (약 112억 원) 규모의 투자로 추진되며, 이 중 400만 유로 (약 66억 원)는 EU 지원금으로 조성

금번 조치는 지방 차원의 독자적 기후정책 추진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카탈루냐, 무르시아 등 다른 스페인 지역들도 지역 내 산림, 농업, 블루카본 프로젝트로 녹색금융을 유치하기 위한 유사한 지역 VCM 체계를 개발 중

출처: https://carbon-pulse.com/

Back to Top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중국 등)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채권,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